

## 농촌 성인 문해교육 성과와 시사점\* -충남 청양군 사례를 중심으로-

전은경·최영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청양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고 향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발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청양군 성인 문해 학습자의 문해력 수준은 학습년차별 성취도를 조사하여 측정하였는데, 문해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문해력은 상당한 정도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 및 인터뷰, 조사결과를 통해 향후 농촌지역 성인의 문해교육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해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상당한 정도로 문해력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기초 생활문해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문해수준이 획득된 학습자들을 위한 좀 더 높은 수준의 문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방법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해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문해교사들의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남성 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주요어: 문해교육, 성인학습자

\* 이 연구는 청양군청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 용역의 내용을 포함함

\*\* 교신저자(최영창) 전화: 02-2287-0365; e-mail: ab7851@hanmail.net  
120-09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학과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15세 이상 성인인구 중 초등 및 중학교 미만 학력소지자는 2010년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630만명 내외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비문해자는 연령적으로는 60세 이상의 고령층, 거주 지역으로는 농촌에 집중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해교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소외계층평생교육사업을 지원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평생학습도시사업과 함께 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들이 펼쳐지면서, 민간차원의 문해교육기관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청양군은 2008년 '청양군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평생학습도시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바 있으며, 여기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문해교육을 펼치고 있다. '초롱불 교실'이라는 사업명을 가진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은 2008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012년 현재 시행 4년차를 맞이한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문해교사 45명, 학습장 50곳, 학습자 490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정수준 이상의 훈련받은 교사가 농촌마을회관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여성노인 학습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양군의 찾아가는 문해교육사업 예산은 2012년 현재 2억여원 군내 평생교육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연구는 4년 동안 진행되어 온 찾아가는 문해교실의 학습자 학력향

상 정도를 평가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청양군 성인문해교육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성인문해교육의 의미와 국내외 동향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성인문해교육의 의미와 중요성, 우리나라 성인문해교육 정책과 최근 연구동향 등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둘째, 문해 학습자들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습기간과 문해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문해교육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청양군의 문해교육 현황과 내용에 대한 자료조사와 군청 담당자, 문해교사, 학습자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청양군 문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문해교육의 논의 동향

#### 2.1.1. 문해교육의 의미

문해(literacy)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정지웅, 2009). 그 이전에는 문해의 상대적 개념인 문맹이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유네스코의 영향으로 사용하게 된 '문해'라는 용어를 평생교육학계에서 주로 사용한다면, 국어학계에

서는 문식성(文識性)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원어를 소리 그대로 적어 리터래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문해교육의 현장에서는 ‘한글교육’ ‘한국어교육’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평생교육법에서는 ‘문자해득교육’으로 다양하게 이름 지어 부르고 있다.

또한 문해교육의 범위와 영역 즉 문해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활동과 내용들도 다양하기 그지없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해교육은 한글을 읽고 쓰는 단순문자해득이지만 생활문해로 불리는 영어와 한문프로그램, 컴퓨터 활용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해교육의 학력화를 염두에 둔 문해교육도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문해는 시대와 사회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 농업사회에서 문해가 단순문해, 즉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을 의미하였다면 지식기반사회이자 지구촌사회인 오늘날에는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은 너머 정보를 국제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기초교육기회가 부족한 저개발국가에서는 독서산을 중심으로 하는 문해교육이 진행되는 한편, 의무교육이 고교수준까지 운영되는 선진국에서는 지식경제사회에 요구되는 근로자의 기초능력에 문해력을 포함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즉 추론하고 관련시키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어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문해교육에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유네스코는 문해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Fransman, 2005). 첫째 독립된 기술의 집합으로서의 문해이다. 이는 읽고 쓰고, 셈하는 기술,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둘째, 적용되고, 실천되고, 상황에 처한 것으로서의 문해이다. 먼저 적용과 관련하여 기술기반의 문해접근 방식의 한계점을 인식한 학자들은 이러한 기술을 관련영역에서 적용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초 노력이 기능적 문해 개념의 개발이다. 기능적 문해의 관점에서는 문해가 보편적인 기술로서 교육될 수 있

다고 생각했으며 문해가 사회적 맥락에서 활용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하나의 학습과정으로 문해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개인은 학습하는 가운데 문해를 가지게 된다. 문해를 경계와 초점을 가진 하나의 산물로 보기보다는 역동적이면 광범위한 학습과정으로 본다. 넷째, 텍스트로서의 문해이다. 문해를 교과로 보는 관점이다. 텍스트는 주제와 장르(교과서, 기술, 전문서적, 소설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Table 1〉 문해 이해의 관점

문해 이해의 관점	특성
기술(skill)로서의 문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 이상의 언어를 읽고 쓰는 기술</li> <li>• 하나 이상의 언어를 말하는 기술</li> <li>• 수리력</li> <li>•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li> </ul>
적용, 사회화, 상황화(applied, social and situated) 된 것으로 문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문해</li> <li>• 기술로서의 문해를 사회 및 직업생활과 연계</li> </ul>
학습(learning)으로의 문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해학습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li> <li>• 성인은 아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습</li> </ul>
텍스트(text)로서의 문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 (subject Matter)</li> <li>• 담론과 잠재적 교육과정(불평등한 권력관계의 합법화 및 재생산)</li> </ul>

자료 : Fransman(2005)

우리나라서는 2007년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문해교육을 평생교육의 주요한 영역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었을 뿐 아니라 문해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문해교육에서 학습한 결과를 초등 및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학력인정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문자해득교육’으로 명명되기는 하였지만 문해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으로 정의되었다. 이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문해인 인가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간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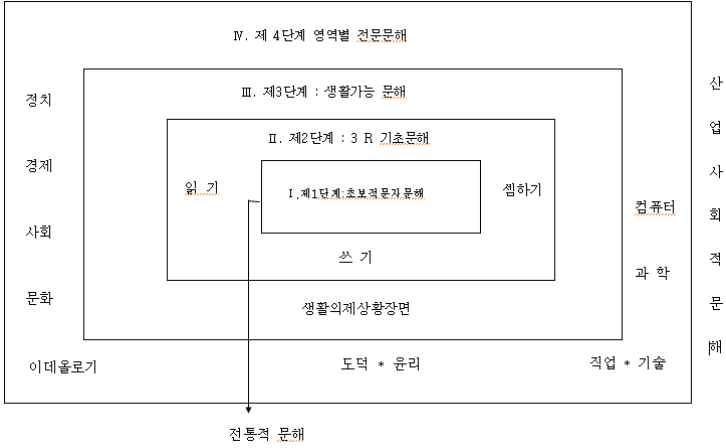
적으로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마친 사람이 갖는 능력으로 정하고 있다(평생교육법시행령 제75조).

### 2.1.2. 문해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

우리나라에서 문해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한 노력은 주로 문맹 및 문해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문맹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김종서(1959: 중앙교육연구소)에 의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문해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쓸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문맹자와 문해자를 구분하고 문맹자를 순문맹과 반문맹자로 구분하고, 문해자를 최저 문해와 기능적 문해로 구분하고 있다. 최저 문해는 자기 친구와 편지 정도의 문장을 읽고 쓸 수 있는 정도이며, 기능적 문해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인정될 만큼 쓰기와 읽기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보았다. 이 조사에서 김종서는 당시 유네스코가 제기하기 시작한 기능문해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문해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이지혜:1992에서 재인용).

이후 문해연구 및 조사는 뜸하였다가 황종건 등(1987)에 의하며 도시 빈민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 역시 유네스코의 분류를 참고하여 문해단계를 비문해, 준문해, 기초문해, 기능문해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1990년 실시된 최운실·백은순의 조사는 전통적인 문해교육의 개념을 넘어 현재산업사회적인 문해의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초문해와 기능문해를 넘어 영역별 기능문해 즉 정치, 사회, 컴퓨터 등 특수영역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 및 보유상태를 문해로 규정하고 하고 있다. 특히 기초 문해는 학교교육 단계를 차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견주어 판단하고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료 : 최운실 · 백은순(1990)

(Figure 1) 문해개념의 모형

### 3. 청양군의 문해교육 현황

#### 3.1. 청양군 성인 비문해 인구

우리나라는 현재 성인의 문해율을 조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구총조사의 학력별인구 분포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해교육 대상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데, 평생교육법령에 의하면 문해교육 학력인정의 대상은 18세 이상의 성인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로 규정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중졸미만의 학력자를 문해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이루어진 인구총조사에서 15세 이상 성인인구의 중졸미만학력소지자가 약 630만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미취학 인구도 약 4%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전국과 청양의 15세 이상인구 중 중졸미만학력소지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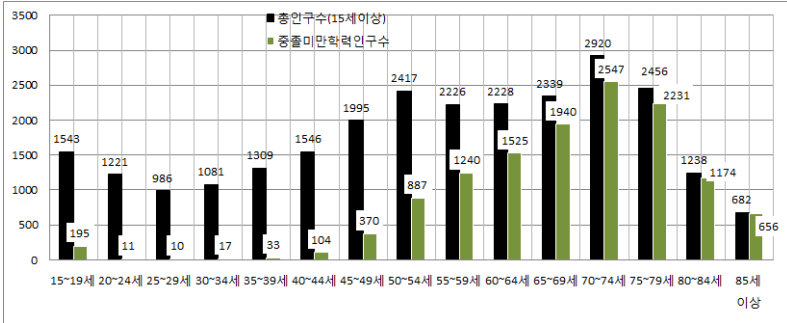
구분	내국인(15세 이상) 총인구수	문해교육대상인구수	문해교육대상인구수 산출내역						계	
			초등학교 - 졸업	초등학교 - 재학	초등학교 - 중퇴	중학교 - 재학	중학교 - 중퇴	안받았음 (미취학 포함)		
전국	인구수	40,203,788	6,264,221	3,607,293	379	330,284	4831,74	248,568	1,594,523	6,264,221
	비율	100	15.58	8.97	0.00	0.82	1.20	0.61	3.96	15.58
청양	인구수	26,187	12,940	7,301	1	586	190	133	4729	12940
	비율	100	49.41	27.88	0	2.24	0.73	0.51	18.06	49.41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청양군의 중졸미만학력인구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청양군의 15세 이상 인구는 26,1876명이며 이중 12,940명인 약 50%가 중졸미만 학력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비문해인구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약 16%)의 3배를 넘어서는 비율이다. 또한 기초문해력도 확보하지 못한 미취학자도 12,940명으로 청양인구의 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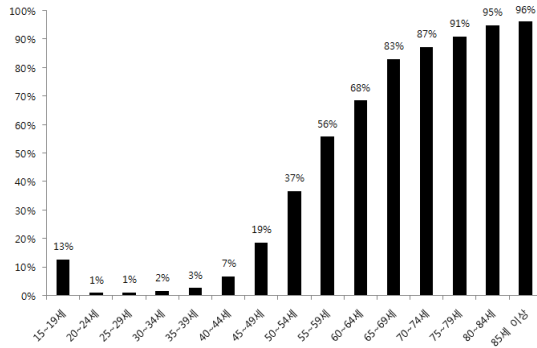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Figure 3]에서와 같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중졸미만학력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5세에서 50세미만 연령대에 속하는 그룹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문해율을 보이지만, 5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10%를 상회하고, 55세 이상은 50%이상을 차지하며, 6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80% 이상이 중졸미만학력에 해당되고 있다.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 총조사

(Figure 2) 청양군의 연령대별 인구와 중졸미만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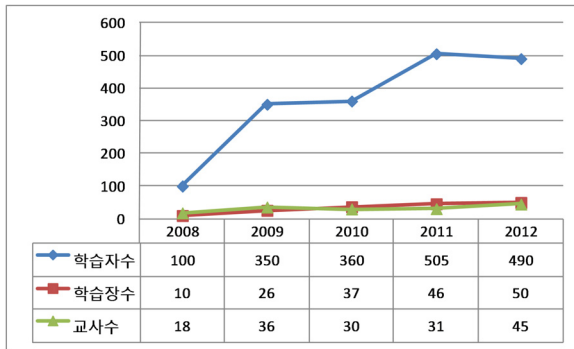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 총조사

(Figure 3) 청양군 연령대별 비문해인구 비율

### 3.2. 청양군 문해교육 추진현황

청양군은 2008년 문해교육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 현재 5년차를 맞고 있는데, 2012년에는 학습자와 학습장수는 5배로 증가하였으며, 문해

교사는 2.5배 증가하였다. 학습자수는 시작 당시 100명에서 2012년 현재 약 5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학습장수도 10개에서 50개로 증가하였고, 활동하는 문해교사는 18명에서 45명으로 증가하였다.



(Figure 4) 청양군 문해교육 추진 현황

이러한 성과는 청양군의 중졸미만학력인구 즉 문해교육대상인구 총 12,940명과 최저수준의 문해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인구(무학자 4,729명)에 견주어 볼 수 있다. 중졸미만학력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10%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무학자를 기준으로 보면 10%정도가 문해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군수가 선언한 ‘한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고을 만들기’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문해교육을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도 고연령층에 비문해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현재 남성학습자는 12명에 불과하여, 남성 비문해자들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양군의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은 2012년 총5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습장소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해학습반(장소기준)

에는 최소 2명에서 40명까지 다양하며, 1회당 2시간 주2회씩 수업하고 있으며, 수업 시기는 오전, 오후, 저녁으로 학습자들의 형편에 부합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학습장은 중단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문해교육을 희망하는 마을들도 늘어나고 있다.

성공적인 문해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문해교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 청양군의 경우 문해교사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군내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먼저 문해교사 양성과정을 30명이 수료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비문해자들에 대한 문해교육을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한국문해교육 협회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수의 문해교사가 교육을 이수하여 문해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군내 문해교사들간 워크숍이나 학습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해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문해교사들은 학습자의 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의 방향 및 문해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군의 문해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Table 3〉 청양군 문해교사 역량개발활동

구 분	교사역량개발
2008년	• 1기 성인문해교사 양성과정운영(30명)/ 한국문해교육협회
2009년	• 제2기 성인문해교사 양성과정운영(45명)/한국문해교육협회 • 제1차 성인문해교사 심화교육과정 운영(29명)/한국문해교육협회 • 제2차 성인문해교사 심화교육 운영(22명)/한국문해교육협회
2010년	• 제3차 성인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30명) /한국문해교육협회
2011년	• 성인문해교육 국비지원사업 「노인운동지도사2급과정」운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교원연수 수료(3명)
2012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교원연수 수료(3명)

자료 : 청양군청 내부자료

## 4. 연구의 방법

### 4.1. 자료의 수집

이 연구는 조사대상을 현재 청양군의 ‘초롱불 교실’에 참가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9년부터 문해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기응답식 20문항에 대해 학습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문해교사들이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습자에 대해 ‘자기평가식 시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학습장별로 문해교육이 계획된 날을 이용하여 학습자들의 문해력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문해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조사의 취지와 시험요령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시험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주도록 당부하였다. 조사에 참가한 학습자들은 254명으로 대부분 여성 노인 학습자였으며, 전체 학습자의 50%를 넘었다.

### 4.2.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국립국어원의 ‘국민기초 문해력 조사’(2008), 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문해교육평가지침’(2009), 서울시교육청 ‘성인문해교육과정 운영지침’(2011) 등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청양군 문해교사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문항을 수정하였다. 학습자들의 문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총 20문항의 질문에 대해 학습자들이 스스로 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 나이 등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 8문항과 계산, 문장완성, 응용문제 등 기초문해자가 응답할 수 있는 문항 8문항, 그리고 실생활에 활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4문항 등으로 구성

하였으며, 문항별 배점을 달리하여 문항당 3에서 9점까지 부여하였다. 측정 문항의 구성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측정문항의 구성

구분	문항수	문항 내용
1단계 (기초문해)	8문항	본인 성명, 연령, 글자채우기, 글자조합, 사물이름쓰기, 주소쓰기, 날짜쓰기, 청양특산물 쓰기
2단계 (생활문해)	8문항	빈칸채우기, 동사활용, 어휘선택, 덧셈하기, 뺄셈하기, 형용사활용, 계절쓰기, 덧셈응용
3단계 (생활응용)	4문항	투약설명서 이해(2), 신문기사 이해, 대중교통이용

## 5. 연구의 결과

### 5.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문해력 평가에 응시한 학습자들은 여성이 96.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문해교육 참여 경력은 2년째가 가장 많은 42.5%였으며, 1년차, 3년차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응시자의 일반적 현황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성 별	남	8	3.1
	여	246	96.9
연 령	65세 미만	19	7.5
	66~70세	59	23.2
	71~75세	90	35.4
	76세 이상	86	33.9
학 습 기 간	1년차	93	36.3
	2년차	109	42.5
	3년차	52	20.1
계		254	100

## 5.2. 문해력 측정 결과

### 5.2.1. 학습자 문해력 총점 비교

학습 년차별 문해력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였을 때 1년차가 58.72점, 2년차가 83.46점, 3년차가 88.96점으로 학습 년차별로 뚜렷한 점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준편차에 있어서도 학습년수에 따라 크게 감소하고 있어 학습기간이 길수록 점수분포가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해교육이 학습자들의 문해능력 향상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고, 청양군 문해교육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Table 6〉 학습자 문해력 총점 비교

구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F값
학습단계	1년차	93	36.3	<b>58.72</b>	30.23	36.0**
	2년차	109	42.5	<b>83.46</b>	20.46	
	3년차	52	20.1	<b>88.96</b>	19.31	
계		254	100	<b>75.53</b>	27.45	

\*\* p<.01

5.2.2. 문항 단계별 점수 비교

문항의 수준별 점수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 20문항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점수 차이를 확인하였다. 1단계 문항들은 자신의 이름, 나이, 주소 등 단순한 문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2단계는 문장완성, 응용문제, 간단한 계산 등을 측정하기 위한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3단계 문항은 실생활에서 활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단계별 점수분포는 다음 〈Table 7〉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7〉 학습 단계별 학습자 문해력 점수 비교

구분		빈도	비율	평균	평균 (100점만점)	표준편차	F값
1단계 (기초문해)	1년차	93	36.3	32.29	<b>76.88</b>	11.15	16.61**
	2년차	109	42.5	37.90	<b>90.24</b>	6.22	
	3년차	52	20.1	39.33	<b>93.64</b>	5.16	
소 계		254	100	36.14	<b>86.05</b>	8.72	
2단계 (생활문해)	1년차	93	36.3	15.11	<b>52.10</b>	11.42	36.585**
	2년차	109	42.5	24.51	<b>84.52</b>	7.01	
	3년차	52	20.1	25.83	<b>89.07</b>	6.93	
소 계		254	100	21.34	<b>73.59</b>	10.04	

3단계 (생활 응용)	1년차	93	36.3	10.97	<b>37.83</b>	11.70	32.780**
	2년차	109	42.5	20.90	<b>72.07</b>	9.91	
	3년차	52	20.1	23.81	<b>82.10</b>	9.51	
소 계		254	100	17.86	<b>61.59</b>	11.77	

\*\* p&lt;.01

문항의 난이도 단계별 점수분포를 살펴보면, 단계가 올라갈수록 년차별 점수분포는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습년수가 길어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평가도구를 활용하였으며, 학습자들의 점수분포를 보면 쉬운 문제들보다 어려운 문제들에서 더 큰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모두 년차별 점수 차이가 매우 크게 나고 있었고, 2년차와 3년차 간에는 상대적으로 점수 차이가 적게 나고 있었다. 그렇지만 3단계 문항들에 대해서는 2년차와 3년차 사이에도 큰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생활응용능력에 있어서는 학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추측할 수 있었다.

### 5.2.3. 지역별 점수분포

읍면별 점수분포를 확인한 결과 <Table 8>과 같이 나타났다. 가장 점수가 높은 곳은 J면이었고, 가장 점수가 낮은 곳은 A읍이었다. 그렇지만 한 개의 읍면에 여러 학습장과 학습자의 학습단계가 상이하여 지역별 점수차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체로 신규로 학습장을 개설한 지역에서는 점수분포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8〉 지역별 학습자 문해력 점수 비교

구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F값	
지역	A읍	44	17.0	56.73	34.10	4.492**
	B면	18	6.9	76.83	25.22	
	C면	28	10.8	75.71	24.78	
	D면	23	8.9	78.64	16.31	
	E면	33	12.7	68.71	27.37	
	F면	23	8.9	81.52	25.91	
	G면	42	16.2	86.74	24.87	
	H면	32	12.4	76.81	23.87	
	I면	12	4.6	87.42	10.55	
	J면	4	1.5	97.50	2.89	
계	254	100	75.26	27.41		

\*\* p<.01

## 6. 결론 및 제언

청양군의 성인문해교육은 2008년부터 군내에서 실시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문해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향후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청양군 성인 문해 학습자의 문해력 수준을 학습년차별 성취도를 조사하여 측정하였는데, 문해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문해력은 상당한 정도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년수가 늘어날수록 기초문해능력보다 실생활응용 문항에 있어서 더 큰 성과를 보이고 있고 편차도 고르게 나타나고 있어 문해교육이 학습자들의 능력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헌연구 및 관계자 면담, 문해력 측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농촌

지역 성인의 문해교육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해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상당한 정도로 문해력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기초 생활문해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에서의 문해교육이 대부분 노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인학습자의 경우 젊은이들에 비해 배운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특징을 보이므로, 계속 학습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교육을 통해 획득한 문해력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둘째, 3년 이상 학습한 사람들 중 우수한 학습자를 선발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의 문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문해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문해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문해교사들의 역량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학습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문해교사들의 역량은 문해교육의 성과를 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문해교사들에게 성인학습자를 교육하는데 있어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고, 학습자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도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촌의 남성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문해교육 참여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남성학습자는 문해교육의 받을 기회를 제한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남성 학습자들의 외면을 받는 상황에서 문해력 향상 뿐만 아니라 남성 노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운전면허증 획득이나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과 병행하는 방법 등은 남성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 국립국어원(2008).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국립국어원.
- 김신일(1989). *문해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한국의 문해교육*, 한국문해교육 협회 엮음. 문음사.
- 변종임 외 5인(2005). *문해정보화 교육의 효율적 추진전략 모색*,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이지혜(2005). *문해조사연구에서의 문해의 개념, 한국의 문해교육*, 문음사.
- 이희수(2009). *문해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 유네스코, OECD, 한국문해교육협회 창립2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 이희수 · 한유경 · 박현정 · 이세정 · 이정희 · 권재현(2001). *한국 성인의 문해실태에 관한 OECD 국제비교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연 · 최동선 · 최지희 · 오은진(2004). *성인 직업기초능력조사연구:OECD ALL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도근 · 김형준 · 김석구(2005). *청양군 평생학습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청양군.
- 전은경(2010). *평생교육 관점의 성인문해교육 개념과 정책방향, 성인문해교육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평생교육진흥원.
- 정지웅(2009). *2009년 시점에서 본 한국문해의 회고와 과제, 한국문해교육협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기조강연 원고*.
- 최돈민 외 7인(2004). *전국 문해교육기관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최영창(2007). *청소년 체험관광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 충성도의 구조분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최운실 · 백은순(1990). *한국의 문해실태와 문해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평생교육진흥원(2009). *성인문해교육 우수사례집*. 평생교육진흥원.
- 허준 · 이지혜 · 채제은 · 노일경(2010). *성인문해교육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 성과분석연구*, 평생교육진흥원 CR 2010-11.
- Fransman Jude (2005). *Understanding literacy: a concept paper*,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Education for All Monitoring Report 2006 Literacy for Life. UNESCO.
- Torres Rosa Maria (2006).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The Linkages*, 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 Biennale on Education in Africa (Libreville, Gabon, March 27-31, 2006).*

UNESCO(2004). *The Plurality of Literacy and its implications policies and Programmes, Position Paper.*

*Received 15 November 2012; Revised 23 November 2012; Accepted 10 December 2012*

# Effectiveness of Literacy Education for Adults in Rural Area and its Implications: Focused on the Case of Chungyang County

Eun Kyung Chun<sup>a</sup> · Yeong Chang Choe<sup>a</sup>

<sup>a</sup>Dep. of Lifelong & Youth Education, Digital Seoul Culture Art University, Seodaemun-gu, Seoul, 120-090, Republic of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literacy education and suggest the implication for the improving the literacy program in rural a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n extensive review of literature related to literacy education. And Researchers developed the test questions for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literacy program in Chungyang country. The data from 254 participants were used for analysis. Some implications were summarized as followings: (1) the literacy program should be continued after three-year term, (2) the futher program must be planned and proceeded for the upgrading learners' ability, (3) various opportunities should be offered for the improving teachers' ability, (4) new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male learners.

**key words** : literacy education, adults learner



Eun Kyung Chun is a Professor of Dep. of Lifelong & Youth Education, Digital Seoul Culture Art University, Address: Dep. of Lifelong & Youth Education, Digital Seoul Culture Art University, Seodaemun-gu, Seoul 120-090, South Korea  
e-mail) ekchun@scau.ac.kr, phone) 82-2-2287-0360



Yeong Chang Choe is a Professor of Dep. of Lifelong & Youth Education, Digital Seoul Culture Art University, Address: Dep. of Lifelong & Youth Education, Digital Seoul Culture Art University, Seodaemun-gu, Seoul 120-090, South Korea  
e-mail) ab7851@hanmail.net, phone) 82-2-2287-0365